

가가 마키에(加賀蒔絵)

가가 마키에는 에도 시대(1603~1867)에 가가번(현재의 이시카와현과 도야마현)에서 탄생한 장식 칠기 중 하나입니다. 옷으로 그린 밑그림이 마르기 전에 금가루 등의 금속가루를 뿌려 무늬를 완성하는 ‘마키에’ 기법을 사용한 화려한 장식이 특징입니다.

에도 시대의 경제는 쌀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는데, 가가번은 풍부한 쌀 생산량을 자랑했기에 번주인 마에다 가문은 매우 부유했습니다. 마에다 가문은 그 풍부한 자금을 문화발전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. 일본 각지에서 뛰어난 장인들을 불러들여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지원했습니다. 17세기 초, 당시 번주였던 마에다 도시쓰네(1593~1658)는 두 명의 마키에 장인, 시미즈 구헤이(?~1688)와 제1대 이가라시 도호(?~1678)를 가나자와성 근처로 불렀습니다. 구헤이는 에도(현재의 도쿄) 출신이었고, 도호는 교토 출신이었습니다. 두 사람은 가가 마키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을 제작했는데, 그 기술을 후계자들에게 전수하여 현재의 가나자와 칠기의 명성을 쌓는 기초를 다졌습니다.

칠기는 옷나무에서 채취한 점성이 있는 수액을 발라 만듭니다. 이 수액을 여러 겹으로 칠하고 굳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들입니다. 또한, 마키에 장식에는 고가의 금속이 사용됩니다. 이처럼 가가 마키에는 제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부유층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. 이 때문에 가가 마키에는 지배계층의 취향과 기호가 반영되어 있습니다. 가가 마키에로 장식된 물품은 안장, 등자(안장 양옆에 매달아 발을 걸 수 있는 도구), 칼집 등의 무구부터 문서함이나 차도와 같은 일상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. 또, 유명한 와카(일본 전통 시가)를 연상시키는 자연경관이나 민화에서 유래해 길조로 여겨지는 길상문양 등을 주제로 한 화려하고 정교한 작품이 많이 제작되었습니다.

가가 마키에는 여러 기법을 조합하여 질감과 깊이가 있는 입체적인 풍경을 표현한 작품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‘시시아이토기다시마키에’는 ‘도기다시마키에’와 ‘다카마키에’를 결합한 마키에 기법입니다. 도기다시마키에는 옷으로 문양을 그린 후 금속가루를 뿌려 건조시키고, 그 위에 검은색 또는 투명한 옷을 여러 겹 덧바르는 기법입니다. 다음으로 문양이 떠오를 때까지 목탄으로 표면을 갈아내어 같은 높이로 만듭니다. 또, 다카마키에는 숯가루와 숯돌가루를 섞은 옷으로 문양을 도드라지게 한 뒤, 그 위에 금속가루를 뿌리고 금속가루 층을 연마하여 완성합니다. 마키에에 다양한 색감을 더하기 위해 부순 달걀껍데기나 나전을 활용한 장식기법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이시카와현립미술관은 시미즈 구헤이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화려한 마키에

독서대와 제 1 대 이가라시 도호가 달빛에 비친 가을 들판을 마키에와 나전으로 표현한 벼루함 등 17 세기 가가 마키에의 명품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.